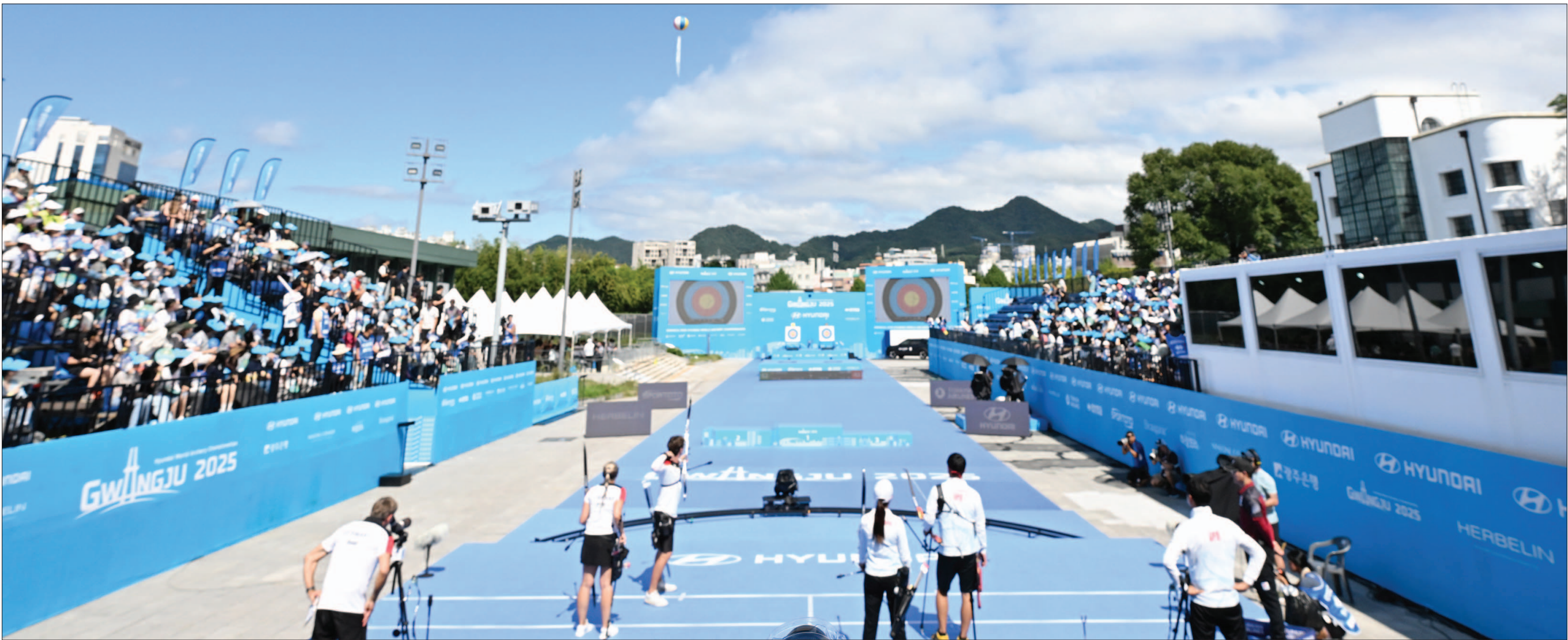




10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 결승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서 빛난 태극전사들, 단체전 금·은·동 수확

남자 단체전 미국 6-0 ‘완승’…대회 3연패 금지탑
혼성 단체전 ‘은’ 8연패 무산…여자 단체전은 ‘동’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광주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포함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우진(청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이 팀을 이룬 한국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에 6-0(56-55 57-55 59-56)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첫 세트 이우석이 8점을 쏘면서 위기에 몰리는 듯 했지만, 김우진과 김제덕이 활약하며 우위를 점했다. 2세트에서는 세 선수가 각각 9점과 10점을 번갈아 명중하며 상대를 제압했다.

마지막 3세트에서는 한 발을 제외하고 모두 10점 쏘면서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2021년 양크턴 대회부터 이 종목 1위를 놓치지 않았던 한국은 이로써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메달은 한국의 이 대회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 도전을 놓친 김우진은 김제덕, 이우석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설움도 씻었다. 앞서 김우진은 이날 오전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조기 탈락했다. 이번 금메달은 현역 최고의 공사로 인정받는 김우진의 통산 10번째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다. 김제덕과 이우석은 통산 3번째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김우진은 대회 종료 후 “우선 오늘 금메달을 따게 돼 정말 기쁘다. 국내에서 열린 대회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면서 “개인전 성적은 아쉽지만,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게 스포츠의 매력인 것 같다.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른 만큼, 성적에 대해 이유를 붙이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일회일비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는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과 김우진(청주시청)이 은메달을 합작했다. 안산과 김우진은 같은 장소에 열린 리커브 혼성전 결승에서 스페인에게 2-6(35-36 37-38 38-36 34-37)으로 패했다. 1·2세트를 연달아 내준 한국은 3세트 안산이 9점 두 발, 김우진이 10점 두 발을 쏘면서 반전을 꾀했다.

다. 그러나 4세트 안산이 첫발에서 7점을 기록하면서 흔들렸고, 결국 그대로 경기를 내줬다. 그 결과 한국 양궁의 세계선수권대회 혼성전 연속 우승 행진은 7연패에서 끊겼다. 한국은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2023년 베를린 대회까지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혼성전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금메달을 따냈다. 광주에서 태어나 문산초-광주체중-광주체고-광주여대를 졸업한 뒤 현 소속팀 광주은행인 안산은 안방 대회에서 10점에 한 번도 적중하지 못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안산은 경기 후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 회복할 시간이 없어 혼성전 부담감이 있었다. 우석 선수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그래도 대회가 남은 만큼 내일 경기부터는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남 준결승에서 대만에게 석패, 3위 결정전으로

밀려났던 여자 단체전 대표팀은 이날 동메달을 따냈다. 안산·임시현(한국체대)·강채영(현대모비스)가 합을 맞춘 여자 대표팀은 인도를 5-3(54-51 57-57 54-57 58-56)으로 제압했다. 첫 세트 승리로 우위를 잡은 한국 대표팀은 2세트 무승부로 리드를 유지했다. 이어 3세트 상대에게 패하며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으나 마지막 4세트 10점 4발을 속아내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전날까지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최용희(현대체천)가 동메달 1개를 수확한 한국 대표팀은 이날 금, 은, 동메달을 1개씩 추가하며 전체 획득 메달 수를 4개로 늘렸다. 리커브 대표팀은 남녀 개인전에서 금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김제덕, 이우석이 우승을 노리는 남자 개인전 16강~결승은 11일 열린다. 여자 개인전은 같은 날 96~32강전을 치른 뒤, 12일 16강~결승전을 치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6라운드에서 금호타이어 후원 ‘금호 SL 모터스포츠팀’ 노동기 선수(가운데)가 1위를 차지했다.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6라운드 우승 인제 스피디움 코스 레코드 기록 경신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이하 금호 SLM팀)이 슈퍼레이스 6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 SLM팀 소속 노동기 선수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6라운드에서 1시간 8분 14초 393(40랩)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노 선수는 전날 예선에서도 1위에 올라 예선과 결선에서 모두 1위를 지킨 ‘폴 투 윈(Pole to Win)’ 우승을 이뤘다. 특히 5년 만에 인제 스피디움의 코스 레코드(1분 35초 239) 기록을 경신하며 안정적인 고전하고 레이싱 퍼포먼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감독님과 팀원들,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응원 속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남은 경기 동안 흔들림 없는 ‘노동기의 레이스’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슈퍼레이스 7라운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

미리보는 프로배구 V리그 컵대회…낭만도시 여수서 열린다

진남체육관에서 13일부터 28일까지
13~20일 남자부·21~28일 여자부
그린카드·미드렐리 사석 등 새규정

2025-2026시즌 V리그 전초전인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KOVO컵 대회는 새 시즌 V리그의 전력 판도를 가늠하고, 새로 합류하는 외국인·아시아권 선수들을 포함해 팀 전체 기량을 점검할 기회다. 대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남자부 경기가 먼저 열리고, 여자부 경기는 21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녀부 모두 해외팀을 1팀씩 초청, 각각 8개 팀이 두 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 뒤 준결승과 결승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남자부는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삼성화재, OK저축은행이 A조에 편성됐다. 챔피언 진출팀 대한항공, 우리카드, 한국전력, 초청팀 나콘라차시마(태국)가 B조에 이름을 올렸다. 나콘라차시마는 2024-2025 태국 리그 1위를 차지한 팀으로 지난 6월 현대캐피탈이 참가했던 2025 윈스트라이크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우승했다. 여자부는 AI페퍼스, 흥국생명, 현대건설, GS칼텍스가 A조에 묶였다. 정관장,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초청팀 득지양(베트남)은 B조에서 각각 경쟁한다. 득지양은 지난시즌 리그 2위, 2025 아시아클럽 챔피언스리그 5위에 올랐으며,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리타루엔과 리베로 레티엔이 소속



2025-2026시즌 V리그 전초전인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2024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우승한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모습.

돼 있다. 지난해 컵대회에서 3경기 전패를 당한 AI페퍼스는 이번 대회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외국인 선수 조이 웨더링턴(등록명 조이)과 세계선수권에서 활약한 일본인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가 합류하는 만큼,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KOVO컵대회는 변경된 규칙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 등 볼거리들이 마련돼 배구팬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먼저 지난 시즌 도입됐던 그린카드와 미드렐리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바뀐 규정에 따라 이번 시즌부터 사라진다. 또 서브 팀의 자유 위치 규칙이 적용된다. 서빙 팀 선수들은 서버가 토스하기 전에 어느 위치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으며, 리시빙 팀은 서버가 볼을 토스하는 순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스킨 반칙도 적용된다. 서빙 팀의 어떤 선수도 볼이 네트 수직면을 넘어갈 때까지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에 주심의 시각에서 선수들은 전후좌우 모든 방향에서 서로 간 1m 이상 거리를 뒀다 한다. ‘낭만의 여수 밤바다’에서 비롯해 ‘로맨스 온 더 코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컵대회에는 다양한 이벤트 역시 체육관 내외부 곳곳에 마련됐다. KOVO 캐릭터를 활용한 에어벌룬이 설치돼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흑백 폴라로이드와 브랜드 된 염서에 낭만의 낭만과 추억을 기록하는 특별한 포토 부스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컵대회 기념 상품을 비롯해 KOVO와 LAP이 콜라보한 상품, 지난시즌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KOVO 마켓도 운영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